

이제 열 법사의 경전속의 수행법 <21>-끝

연재를 마치며

부처님 당시 사유했던 성내에 한 은행가의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자기 집으로 자주 밥을 얻으러 온 스님에게 저도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길 원하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스님은 그럴 당시의 재산을 삼등분하여 사업에, 아내와 자녀들에게, 부처님의 교단에 시주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은행가의 아들은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그는 또 스님에게 할 일은 무엇이나고 물었습니다. 스님은 부처님과 가르침과 교단에 귀의하고 다섯 가지 계를 받아 잘 지키라 했습니다. 그는 이 일도 곧 실천한 다음, 계속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아예 출가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스님이 됐고 아누ष्마라는 법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스승으로부터 출장 등 많은 것을

미처 버릴지도 모른다고 걱정하고는 이 사실을 부처님께 고했습니다. 제자들의 말을 전해들은 부처님은 아누ष्마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왜 너는 수행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는 "저는 생사 윤회의 흐름에 따른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출가를 하였는데 너무나 많은 것들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저를 더욱 괴롭고 혼란하게 만듭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부처님은 "너는 이제 한 가지만 잘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행할 필요가 없느냐"고 타이르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아누ष्마가 그 한 가지란 무엇인가 바로 너의 마음을 관찰하는 것, 이 한 가지만 충실히 하면 너는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신 다음 마

모든 불교수행 마음 관찰로 귀결 자기 마음 잘보면 괴로움 벗어나

배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출장을 가르치는 스승은 어찌나 성격이 까다로운지 하루 종일 많은 질문을 쏟아내면서 이것저것 따지고 질책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누ष्마라는 이런 일을 당하게 되자 출가 생활이 싫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출가를 한 이유는 다만 괴로움을 벗어나고자 함이었는데 이제 나 자신의 몸과 마음을 어찌 해야 되는지조차 알 수 없게 됐다. 차라리 가정으로 돌아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한 번 시작하자 아누ष्마라는 스님 생활에 더욱 흥미가 없어졌고 불만만 쌓여갔습니다. 그의 갈등은 몸과 마음을 쇠약하게 만들었고 병자의 모습으로 점점 변해갔습니다.

그러자 이 모습을 지켜 본 동료 스님들은 아누ष्마를 저렇게 두었다가는 큰 병에 걸리거나

음은 섬세하고 미묘하여 보기 힘든 것 어느 곳이면 즐거움을 따라 움직인다. 현명한 자는 그런 마음을 잘 관찰하거나 잘 관찰 되어진 마음이 그에게 행복을 가져다준다는 계승을 읊으셨습니다. 이 계승을 들은 은행가의 아들 아누ष्마는 다른 수행승들과 함께 번뇌가 다한 아라한도의 경지를 성취했습니다.

지금까지 일년여에 걸쳐 경전에 나오는 수행담과 함께 수행법을 소개하였습니다. 수행은 그 방법이 무엇이던 간에 결국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참선, 염불, 간경 등 불교 속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는 하나의 일이며 그 진실이 드러납니다. 자신의 마음을 보지 않고서는 결코 부처님을 볼 수 없다는 가르침을 명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마선원장



서울 금강선원 신도들이 12월 7일 선원 법당에서 열린 '능엄경 수행' 강좌에서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김철우 기자

1988년부터 생활참선을 위주로 도심 포교를 해온 서울 금강선원장 해거 스님. 불교TV에서 <금강경> <육조단경> <유식30송> 등 '경전강의'를 꾸준히 진행해오고, 최근에는 초심자를 위한 참선책 <참나-좌선의 강의>(선문출판사)를 펴낸 스님이 12월 7일부터 4개월간 '능엄경 수행' 강좌를 마련했다.

스님은 이날 강의에서 <능엄경>이 수행의 방법을 가장 구체적으로 제시한다고 강조했다. '무엇을' '어떻게' 수행할지를 석가모니 부처님과 아난의 문답으로 명쾌하게 일러주고 있다는 것이다.

"능엄경 수행의 핵심은 회광반조입니다. 빛을 보면 빛을 보는 그 눈을 돌이켜 보는 것입니다. 빛이든 소리든 냄새든 보는(觀) 그 눈을 원만히 통달(圓通)해 삼매로 들어가는 행법이 바로 능엄경 수행입니다. 이를 위해 능엄경은 각각 열 가지의 신(身), 주(住), 행(行), 회향(回向), 지(地) 등 보살의 5단계에 대한 밀그림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수행단계를 점검하는 50명마법까지 일러줘 수행의 길라잡이가 됩니다."

"능엄수행이 수행자에게 깨달음의 확신과 발심을 일으켜준다"는 것. 12월 7일, <능엄경>이 '수행법의 매뉴얼'이라고 강조하는 스님

'마음 어디에 있나' 구체적인 선수행법 제시 깨닫는 방법 25가지·공부 증상 50가지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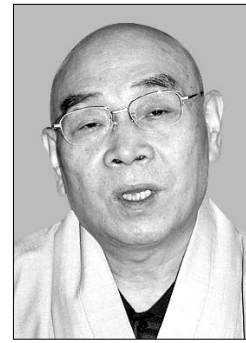
을 서울 개포동 금강선원에서 만나 '능엄경 수행법'에 대해 물어보았다. cafe.daum.net /sunmoontemple. (02)445-8484

▲'능엄경 수행' 강좌를 연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능엄경>은 선수행의 행법을 가장 구체적으로 제시한 경전입니다. 수행법, 화두 드는 법, 관법하는 법 등을 사실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능엄경>을 안 본 선사가 없다고 할 정도지요. 때문에 <능엄경>은 선수행의 길잡이입니다. 구체적인 행법을 제시하기 위해 제자부자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공부를 할 수 있게 합니다.

▲능엄경에서는 무슨 수행법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능엄경>은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제시하는 경전입니다. 수행의 핵심은 여기서 비

보고 듣는 그놈을 돌이켜 깨쳐라

해거 스님이 말하는 능엄경 수행법



뜻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닫는 25가지 방법과 공부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증상 50가지 마진을 경에서 명시하는 것이 이 때입니다. 25원통은 6가지 '인식의 뿌리'인 육근(六根은, 귀, 코, 혀, 몸, 의식), 6가지 '인식의 놀음'인 육식(六識)과 '인식의 대상'인 육진(六塵:물체, 소리, 냄새, 맛, 느낌, 법), 7대(掌, 물, 불, 바람, 공기, 뿌리:地水火風空樹) 등의 경계에 고달리지 않고, 원만하게 통하게 하는 행법을 말합니다.

수원통을 예로 든다면, 밖에 내리는 비는 내안의 눈물, 침, 피, 배설물과 똑같은 물이라고 관하는 행법입니다. 그 근원이 같다고 보는 것이지요. 이렇게 그 관계를 규명하다보면 자연

볼 수 없는 눈을 안으로 돌려야겠지요. 이것이 회광반조입니다. 마찬가지로 소리는 밖에 들립니다. 하지만 내면의 소리를 잘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능엄경으로 깨닫는 분이 많습니까?
-옛 선사들이 소리를 듣고 곧바로 깨친 경우가 바로 그렇습니다. 이근원통의 마지막 단계가 듣는 성품 자체를 다시 반문하는 '반문문상'인데, 가령 백성선사 문하에서 어떤 스님이 종소리를 듣고 깨쳐들었다가 대나무가 부딪치는 소리에 견성했다는 것들이 '소리 끝에 돈오했다'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25원통 행법이 <능엄경>에 바탕을 둔 선법이라 해 '능엄선'이라고도 불립니다.

▲25원통 행법을 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들여다볼 때는 눈도 귀도 코도 그 경계를 봐야 합니다. 심지어 세포도 그 마음자리를 봐야 합니다. 6근, 6진, 6식 등의 인식이 이 판 짓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야만 정말로 세상의 실상을 하나도 빠짐없이 확실히 보게 됩니다. 이때 비로소 원통이 이루어집니다. <능엄경> 수행은 '바로 보고 듣는' 훈련입니다. 바로 보는 것에 집중하면, 바로 그것이 삼매가 됩니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선으로 본 '금강경' 특강

서울대학교불자연합회 불이회(회장 소광섭)는 12월 22일 오후 7시 교내 인문대 8동 102호실에서 '선승이 본 금강경' 특강을 연다.

승사 前 방장 승찬 스님의 생애와 정혜 스님(여주 백화사 주지)이 강설하는 이번 특강에서는 참석자와 즉문즉답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018-313-9660

위빠사나 초보자 수행강좌

한국 위빠사나 선원은 12월 27일까지 제3차 위빠사나 수행 초보자 수행강좌를 개최한다. 매주 화요일, 수요일 오후 2-5시에 열리는 이번 강좌는 조계종 이종숙 포교사의 지도로 법문, 좌선, 경행, 명단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02)512-5255

개 천지조화 벽

● 예언에 의한 국내최초 새시대 새미륵시대 여의주시대를 펼치는 천기도량 완성

- 원후대사님의 미륵상부경에 의하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도솔천에서 미륵보살님이 미륵시대를 펼쳐 중생을 구제하신다고 예언
- 미륵보살님은 누구이며 과연 어떻게 미륵시대를 펼칠것인가?
● 미륵보살님께서 천상계에서 강림하시어 이제 중생구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 중앙박물관에서 전시한 (2004년 7월 20일 ~ 10월 17일) 미륵보살님이 금동 반가사유상 (국보 78호, 83호)은 미륵시대를 예고한 것입니다.
- 미륵보살 반가사유상 중앙박물관에서 천지조화의 기운을 내리시는 다섯분의 대성존님과 천지조화의 수기를 받으시고 강림하신 일곱분의 연화미륵님과, 삼십삼천, 서른세분의 천왕님과 미륵시대를 펼치오니 천견하시어 소원성취하십시오.

특이 도인, 스님, 보살님, 철학인, 종교인, 기공인 또한 일반인에게 공개하오니 천견, 소원성취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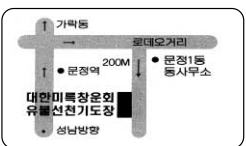
"미륵시대를 전파하라는 천명을 받은 미륵도인, 성상성지에서 오랜 수도를 통하여 천문, 지리학, 천지인 학문과 천지신명의 역통학문에 의한 진리연구로 佛知行 한 미륵선관대도인(天龍導師)이 직접 상담 조상천도 업장소멸 인생문제를 천기도법으로..."

"천기도법"(天氣道法)

- 천기도법에 관심이 있거나 공부 하시려 하시는 분
- 사업을 계획하시거나 절안되는 분
- 질병으로 고통 받는 분
- 집안이 잘 안되는 분
- 천기를 받아 건강하고자 하는 분

예약 및 문의: 02)403-5272

大韓彌勒創運會 儒佛仙天氣道場



천안동.천이동.의동

양수영 원장님은 천안동, 천이동, 의동이 열린보로 영화 화면 보듯이 영가들과 대화를 하여 병으로 인해 중병에 시달리는 분들을 치유합니다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환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병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든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는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하늘의 기운이 들어오는 약손을 만들어 드립니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 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불침,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박작, 조울증, 강박중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기우뚱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 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그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떠한 사실도 알게된다.
- ※ 전화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법화 정법회. 천일선원 소백산수련원 054)638-2224 <경북영주시 단산면 구구리>